

2000년 경제환경변화와 주류산업의 대응

머리말



심 영 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0년에 들어와 우리 경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새천년의 비전을 실현할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하였다. 무엇보다도 1997년 말 이래 외환위기의 터널을 벗어났다는 후련함이 있다. 외환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던 것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이었으나, 이미 81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쌓아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남아있는 것이 30여 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방비가 제법 튼튼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환보유액의 확충은 외환위기의 탈출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외환보유고의 확충을 통해서 외환위기를 탈출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위기관리능력도 한결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환보유고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라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된다. 그만큼 국민경제가 국제자본의 위협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면 만일의 위협에 대비한 방비가 든든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국제적인 신인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 덕분에 외국인투자가 활발하

■ 目 次 ■

머리말

- I. 외환위기의 파급영향과 변화
- II. 2000년 경제전망
- III.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 IV. 대내외 환경변화와 주류산업의 대응

게 유입되고,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탈 수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쌓인 외환보유고가 IMF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니라 지난 2년간의 무역흑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지난 2년간의 경제개혁 작업은 위기탈출 노력의 또 다른 모습이다. 외환위기가 단순히 우리 경제의 유동성부족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경제 각분야의 구조개혁에 나선 것이다. 경제개혁은 아직도 진행중인 작업으로서, 앞으로 21세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틀을 새로 짜는 중대한 과제이다. 과거의 제도와 틀로는 경제전반의 효율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의 고비용 저효율 경제체제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연결되고 이로 인한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하여 외환위기가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인 한편으로 경제의 구조적 위기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외환위기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2년간은 경제활동의 모든 초점이 위기극복에 맞추어졌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이고, 기업과 금융 등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이 모두 다 그러했다. 위기의 극복은 과거의 제도와 틀을 벗어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외환위기와 그 극복과정의 여파가 그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환경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영향을 받은 셈이다.

여기에서는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외환위기

의 영향과 변화, 2000년의 경제전망,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등 대내적인 환경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대외경제의 여건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물론 이 모든 환경변화가 주류산업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자 한다.

1. 외환위기의 파급영향과 변화

(1) 실물경기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제의 모든 부문이 타격을 받았다. 특히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물경기가 크게 위축되었다. 외환위기를 와중에서 시달리던 199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8%를 기록하였고, 실업률은 연평균 6.8%로 증가하였다. 실물경제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1998년에는 투자가 그 전해의 79%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민간소비도 9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수입 역시 물량기준으로 전년도의 78%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반면에 수출의 경우에는 물량이 133% 증가하였으나, 수출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금액기준으로는 2.8% 감소하였다.

산업별로는 광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조업, 농림어업 등의 순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제조업의 1998년도 국내총생산은 전년도에 비해 9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나무·나무제품, 자동차, 신발, 가죽, 기계장비, 전기기계 등이 타격을 많이 받았고, 반면에 전자부품을 포함한 영상·음향·통신장비와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의 생산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외환위기는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실업, 산업생산 등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특히 금융부문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등의 노력으로 외환 및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으며, 그 덕분에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경기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1998년 8월에 경기의 저점을 통과한 후 급속한 경기회복을 보였다. 1999년의 경제성장률은 무려 10.2%를 기록하였다. 비록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전하는 경기반등의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10%가 넘는 성장세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의 질곡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좋은 지표라 아니할 수 없다. 경기의 확장국면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경기의 뚜렷한 회복추세는 무엇보다도 힘찬 수출증가에 힘입은 바 크며,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도 상당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실물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입도 따라서 크게 늘어나고 있어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표 1>

제조업의 생산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산 업 별	97.上	97.下	98.上	98.下	99.上	99.下
제 조 업	3.8	5.2	-9.5	-5.6	18.0	27.6
음 식 료 품	-0.5	-2.2	-10.7	-8.3	5.7	11.9
섬 유	-8.3	-7.4	-10.5	-11.0	1.4	11.8
신 발 / 가 죽	-12.2	-21.3	-34.9	-25.6	-2.1	4.3
나 무 / 나 무 제 품	3.1	-2.2	-43.1	-32.0	32.5	19.5
종 이 / 종 이 제 품	6.5	2.0	-13.7	-10.1	11.1	10.7
석 유 정 제	27.6	16.7	-8.3	-12.5	8.8	9.0
화 학	14.2	11.9	-1.9	-3.9	7.3	12.1
고 무 / 플 라 스틱	3.6	0.7	-21.0	-21.0	11.1	22.8
금 속 제 품	5.0	5.7	-11.9	-12.4	7.7	19.9
철 강	4.0	7.0	-7.1	-11.9	3.4	18.9
조 립 금 속 제 품	-1.1	-5.3	-23.0	-18.7	4.0	7.9
기 계 장 비	3.6	-8.0	-30.0	-28.3	11.1	32.5
일 반 기 계	2.1	-10.9	-32.4	-29.4	14.4	35.5
사 무 회 계 용 기 계	19.4	18.8	4.4	-0.5	72.1	136.6
전 기 기 계	3.9	-2.1	-27.3	-24.3	16.0	33.7
영상/음향/통신장비	20.0	33.7	21.4	35.6	41.7	39.1
전 자 부 품	25.5	43.1	33.0	51.9	43.4	35.3
자 동 차	2.5	-5.3	-39.2	-29.7	41.0	62.1
기 타 운 송 장 비	3.8	28.1	55.3	22.4	6.5	10.5
정 밀 기 기	-4.6	-7.9	-19.6	-19.2	2.8	18.5
기 타 제 조 업	-5.8	-13.2	-17.1	-5.0	19.3	19.5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제조업 생산의 경우에는 1999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에 비해서 18%, 하반기에 27%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 내에서도 특히 나무제품, 기계장비, 사무회계용기계, 전기기계, 영상·음향·통신장비, 자동차 등이 급속한 회복세를 타고 있고, 여타 산업의 생산도 1998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 외국인투자의 유입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투자유치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은 그 이전에 다소 폐쇄적이었던 정책기조와 비교할 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투자대상업종의 대폭 개방, 자유화 조치의 단행,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등 다방면에서 추진되었다. 우선 외국기업의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인 외환 및 금융 규제의 대폭 자유화, 외국인의 자유로운 토지취득 허용, 적대적 M&A를 포함한 모든 M&A의 자유화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외국인투자유치를 겨냥한 이러한 조치들, 즉 금융·외환, 토지, M&A 등 3개 부문의 자유화는 사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요원한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1998년 7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나섰다. 투자인센티브 확충, 원스톱서비스 구

축, 외국인투자지역 도입, 투자유치전담기구 신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내기업의 역차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내기업과 동등대우에 주력하던 이전의 정책과 비교해서 큰 대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대상업종을 외환위기 이후 3차례에 걸쳐 대폭 개방하였으며, 2000년 3월말 현재 총 1,100여 업종 중 24개 업종만이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한업종 가운데 18개 업종은 지분율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며, 라디오 및 TV 방송과 연안어업 등 6개 업종만이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은 투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1998년에는 신고기준으로 89억 달러, 도착기준으로 52억 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는 성과를 올렸는데, 이는 1996년 실적의 2배가 넘는 실적이다. 1999년에도 155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투자의 유입이 신고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서도 외국인투자는 더욱 활발하게 유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에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까다로운 국가로 정평이 나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상위권에 속해 있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외국인투자유치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과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개방화·세계화 시대에는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라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만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계

<표 2>

경기국면(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저점 (89.7)	정점 (92.1)	저점 (93.1)	정점 (96.3)	97.12	저점 (98.8)	98.12	99.6	99.12	2000.1
99.2	101.9	96.3	105.7	100.8	88.0	91.4	94.7	98.5	99.1

다가 최근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현상과 더불어 국제무역의 패턴이 산업내무역·기업내무역의 확산 추세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II. 2000년 경제전망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의 우리 경제는 경기의 완전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많은 전망기관들이 금년의 성장률을 작년의 10.2%보다는 훨씬 낮은 6~7% 정도로 예상했으나, 1/4분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러한 전망은 어긋나고 있다. 경기가 당초의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벌써부터 각 기관마다 금년도 성장전망치를 8%대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사실 1999년도의 성장치에는 그 전해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반동의 의미가 적지 않았으므로,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은 금년부터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감소했던 재고투자와 설비투자가 작년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 금년에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투자도 금년 하반기에는 회복의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바야흐로 재고투자 회복→설비투자 회복→건설투자 회복의 선순환에 돌입하리라는 예상인 것이다. 게다가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에서의 소비증가가 경기회복을 한껏 부풀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의 확장 국면에서는 소비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이 보통인 데다, 경기의 호조가 지속되면서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점이 소비증가의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미 각종 통계치를 보면 가계의 소비심리가 실제로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카드사 할부금융을 포함한 가계의 신용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급감하였으나 작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민간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금년 1/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조사를 시작한 1991년 1/4분기 이후 최고치인 59.6을 기록하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종합적인 경기의 높은 상승세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생활형편에 대한 판단, 현재 및 향후의 경기 예상, 내구재 구입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비자태도지수가 기준치인 50을 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및 향후 경제에 대한 예상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생활형편지수 또한 금년 1/4분기에 1996년 4/4분기(49.2)이후 가장 높은 48.9를 기록하여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생활형편이 크게 호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형편의 호전은 높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감소, 자산가치 회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지출지수도 금년 1/4분기에 1996년 4/4분기(67.6) 이후 최고인 52.4를 기록하여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완전히 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통·통신비, 교육문화비를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두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비의 선행지수인 미래소비지출지수에 비추어 볼 때, 소비증가세는 적어도 금년 3/4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가 54.6을 기록하여 선행성이 높은 미래소비지출지수의 절대수준이나 개선 추이로 볼 때 소비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실물경제의 측면에서 국내산업은 내수의 본

격적인 회복과 함께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른 꾸준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는 산업활동이 내수보다는 주로 수출에 의해 견인되었던 것에 비하면, 금년의 산업경기는 수출과 더불어 내수의 본격적인 회복에 힘입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금년 3월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2월의 110에서 131로 상승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도체감경기가 앞으로 큰 폭으로 호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BSI가 100 이상이면 기업의 경기가 전월에 비해 호전되고 100 이하이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금년 3월의 BSI는 1992년 3월에 133을 기록한 이후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금년 중에 재고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의 선순환을 타고, 내수와 수출의 본격적인 회복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수반하는 경기상승국면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대내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불안요인이 거의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외적으로도 유가상승 등의 불리한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경기가 호전되는

등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Ⅲ.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1) 1단계 경제구조개혁 (1998~99)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그 원인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작업이 추진되었다. 경제 각 부문별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제도와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우선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 기준의 감독기준을 도입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감독체계를 재정비하였다.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 강화 등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에

〈표 3〉 소비자태도조사의 주요 지수 추이

(기준치 = 50)

	97. 4/4	98. 1/4	99. 1/4	2000. 1/4
소비자태도지수	43.5	33.7	50.5	59.6
생활형편지수	42.2	23.6	30.3	48.9
소비지출지수	46.6	27.7	37.7	52.4
미래소비지출지수	45.8	37.9	44.5	54.6
현재경기판단지수	13.4	2.1	41.5	61.9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 Brief」제154호, 2000. 3.

따라 그룹이 아닌 개별기업의 경쟁력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이러한 구조조정의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년 이상 진행된 경제구조개혁의 성과는 결코 적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4대 부문의 개혁을 통해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이 큰 성과이다. 특히 금융·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과 금융기관도 산할 수 있다는 시장원리를 확실하게 정립하였다. 1997년말 이래 합병, 자산부채 이전·청산 등의 방식으로 총 347개의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다. 이는 전체 금융기관수의 16.5%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17개 그룹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총 303개 계열사중 237개 계열사를 합병·매각·청산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기업의 재무구조도 크게 건실해져, 대우그룹을 제외한 4대 그룹의 부채비율이 1997년말의 470%에서 1998년 말에 352%로, 1999년 말에는 200%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구조개혁이 추진되면서 금리·환율·물가 등 거시경제여건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여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407개 상장제조업체의 경상이익이 1998년의 1.3조원에서 1999년에는 16.2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6대 이하 기업개선대상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1998년의 마이너스 9.2%에서 1999년 상반기에는 1.7%로 호전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4대 부문 가운데 금융분야의 개혁이 가장 큰 성과를 나타내었고, 기업부문에서도 재벌정책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감

하게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여타부문에 비해 개혁의 강도와 속도가 다소 미약했다는 평가이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2) 2단계 개혁 프로그램 (2000~)

지난 2년간 진행된 4대 부문의 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2단계로 추진할 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1단계의 개혁작업이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과 기본 틀을 마련하는 하드웨어의 개혁이라면, 금년부터 추진되는 개혁의 2단계 개혁은 시장경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시장메커니즘의 효과적인 작동을 목표로 하는 2단계 개혁의 접근방식은 1단계 개혁에 비해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즉, 하드웨어적 개혁이 아닌 시장 인프라 확충 및 경영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개혁이라는 점, 재무건전성 중심의 양적인 구조조정보다는 기업과 금융의 각 경제단위별로 수익성·기술혁신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한다는 점, 정부의 직접적 독려보다는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개혁이라는 점, 외형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시장내부의 혁신을 위한 개혁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부문별로 2단계의 개혁 프로그램을 보면, 각 부문에서 앞으로 실천해 나가야할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세부적인 실천과제는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추진될 것이다. 우선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실물경제의 발전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수익성 제고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열린 정부와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개혁해 나가려고 한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무한경쟁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의 선진 노사관계가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Ⅳ. 대내외 환경변화와 주류산업의 대응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와 개방화 현상은 주류업계에도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비단 주류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그동안 국내 주세율 체계를 바꿀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던 EU가 요구사항이 관철된 이후에도 또다른 문제를 잇따라 거론하고 있는 점이 우선 주목된다. 최근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이른바 '무역장벽보고서'에 의하면, 주류에 부과되는 현행의 종가세 체제는 수입품을 차별하고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알코올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체제로 바꾸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주류수입에 대한 수입관세를 아예 철폐해 달라는 요구도 들어 있다. 이밖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주류(BIK)와 수입주류(BIS)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면허를 받아 각기 다른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하나의 단일법인으로 통합하는 것도 요구사항 중의 하나이다. 현재의무화하고 있는 수입주류의 '제조공정증명'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원산지증명'으로 바꾸어 달라는 주문도 있다.

외국의 이러한 요구는 다름이 아니라 국제

교역의 내국민, 무차별 논리를 앞세워 시장공략에 나서겠다는 의미이다. 세계적으로 위스키, 꼬냑, 포도주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업체 간에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확대의 가능성이 높은 한국에서 전략적으로 점유율을 높여나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개방화·세계화 시대에는 대내환경과 대외환경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대외환경의 변화요인들이 대내환경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산업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소주와 위스키의 조세율 격차 축소를 요구하는 교역상대국과 WTO의 논리는 전통적으로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조세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외환경의 변화가 대내여건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소주에 대한 합작의무를 폐지하는 등 주정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게 된 것도 물론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정책의 일환이었지만,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 이제 국내의 주류시장은 모든 종류의 주류에 대하여 내·외국인의 차별없이 판매 및 수입면허가 개방되어 있으며, 주류제조 역시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우리 주류업계에 불어닥친 개방의 높은 파고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국내 주류산업은 개방되고 자유화된 국내의 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진 경쟁과 열려진 기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주류와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개혁됨으로써, 투자와 생산, 가격결정, 유통 및 판매의 제 단계에서 경쟁을 통한 생존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업계 스스로의 대변신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다행히 우리 주류업계는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핵

심역량을 확보하고 양성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우리 사회는 변화에 둔감하고 변화 자체를 싫어해서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그러나보니 경쟁보다는 보호와 안주에 더 익숙해져 있는 사회다. 심지어는 소비자들까지도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경우에 당혹해하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일단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 억척스러운 정도로 변화를 향해 행동하는 경향도 있다. 이제는 주류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모두 환경변화에 순응해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우리 주류업계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단기적인 대응뿐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지닌 산업으로서의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개방화와 세계화가 진전되면 수출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시장을 위주로 하는 산업이라 할 지라도 국제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국내기반의 존립조차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밑 듯이 밀려오는 주류수입의 규모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국내경기가 호전되고 소비자심리가 되살아난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주류산업은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서 있다. 따라서 양적인 규모의 성장보다는 문화산업으로서의 질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통합의 정도가 깊어지고 지구촌화되는 시대에는 경제적인 부가가치와 함께 문화적인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주류산업의 역할이 돋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반드시 실용성이 있는 제품만이 경제적, 문화적인 부가가치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세계시장에서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포도주나 꼬

낙의 경우 한 해의 수출액이 에어버스 비행기 수백대에 비해 해당된다는 비유는 이제 고전이 되고 말았다.

산업정책적으로 우리나라도 단순한 문화산업의 차원을 넘어서 주류산업을 전략적인 수출산업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성숙산업의 특성상 국내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보다는 수출을 통한 신시장의 개척노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우리 주류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수출이 그 전 해에 비해서 27%나 늘어났고, 규모로도 거의 1억 달러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렸다. 요즘 뜨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지난해에 1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기록한 것과 더불어 고무적인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수입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중국과 동남아 시장으로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진출여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류제품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때에는 우리 고유의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화된 생산공정을 거친 상품을 앞세워야 한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는 세계시장을 누비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수입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에서 우리의 주류제품이 고가의 고급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도 국내 주류업계가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주중에 대해서는 제품개발과 판매,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류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더 긴급하다고 본다.